

자비 주일인 부활 2주일을 맞이하며 아드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가장먼저 "평화가 너희와 함께!"로 평화를 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평화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또는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할까요? 평화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에, 관계가 좋으면 평화가 있고, 관계가 나쁘면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속의 자잘한 관계 속에서 나의 평화가 깨지려 할때, 우리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이 빌어주셨던 평화를 기억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늘 평화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7년 4월 23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복음 말씀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임신부 이야기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시기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이번 사순시기와 성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과 만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각자의 신앙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삼일 전례에 더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바쁜 삶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고 또한 교통편이나 성당의 위치 때문에 오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꼭 이곳 한인 성당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각자의 삶의 중심에 신앙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시기를 지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은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살아 있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현재이며 현재진행이어야 합니다. 매일이 부활이며, 그 부활의 원동력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이들은 곧 부활을 사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고린 13장 1-3.)”

“가장 깊은 진리는 가장 깊은 사랑에 의해서만 열린다.” (하인리히 하이네)

2017년도 4월 셋째주 공지입니다.

<지난행사>

지난 일주일동안 파스카 성삼일 전례와 더불어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님들, 소중한 시간내어 봉사해 주신 모든 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수난 감실 성체 조배: 4/14 새벽 2-3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이른 시간에 수난 감실의 성체를 지키고 함께 기도한 홍상미, 권창모, 김정호,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전영진, 김다솜 형제/자매님들, 감사합니다.

부활계란 만들기 - 4/15

전신자를 위한 약 500개의 부활 계란을 예쁘게 만들어준 이윤지, 김정호, 홍상미, 전진영, 그리고 뜨락회 김강훈 형제/자매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모두들 정성스런 부활계란 선물을 받았네요~

성삼일 전례 봉사

복사: 차아름, 안해준, 전진영, (뜨락회 김강훈, 이윤조, 신민아, 김다솜); 독서: 권창모, (뜨락회 최정희); 전례 프로젝트 담당: 장 익; 부활 초 점화 봉사: 최보나, 홍상미 (뜨락회 김다솜, 이가은) 자매/형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음식 바자회 - 4/16

하모니와 뜨락회가 함께 음료를 판매했습니다. 메뉴 작업과 장보기, 셋팅 및 음료 판매를 도운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성당에 감사 헌금으로 봉헌하고 일부는 추후 하모니+ 뜨락회 공동 행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보 나눔 봉사 - 4/16

수고해 주신 장 익 가밀로 형제님과 이윤지 소피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주보 나눔 봉사 - 4/23

매 주일 교중미사 전에 주보나눔 봉사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가능한 날로, 홍상미 세레나 자매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오전 10:30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당에 도착해 주세요. 하모니와 뜨락회에서 각 1명씩 성당 정문 입구와 친교실 입구에서 봉사합니다. 먼저오는 봉사자가 성당 정문 입구에서, 나중에 도착한 봉사자가 친교실 입구에서 봉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4/23일 봉사 - 홍상미 세레나. 감사합니다!

안나/요아킴회 점심 서빙 및 설거지 봉사 - 4/23

23일 주일 교중 미사 후 성당의 어르신들 안나회/요아킴회 정기 모임에서 전신자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하모니와 뜨락회가 점심서빙 및 뒷정리/설거지 봉사를 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하모니 새 이름표

'하모니'를 포함한 새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지역으로 구분된 각 해당 구역이 적혀 있는데 청년회는 거주 지역이 아닌 연령대로 나뉘는 그룹이라 이제껏 이름과 본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 및 여러 활동에 이름과 함께 소속 단체를 표시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과 신부님의 동의아래 '하모니'를 이름표에 포함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이름표를 부착**하시되 전에 드린 이름표도 여분으로 남겨 두세요~ 이름표는 성당에 있는 동안 계속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표 앞은 한글로, 뒤는 영어미사를 위해 영어로 적을 예정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영어이름 스펠링을 4/23일까지 안해준 야고보 형제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30일 영어미사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

** **부활시기(4/16-6/4)**동안 신앙의 신비어 응답송을 '다'양식으로 합니다.

'다'양식: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 **부활시기**는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로 예수 부활 대축일(4/16) 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6/4)까지 50일간 계속됩니다.**

사순시기 성경 쓰기

사순시기동안 신약성경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과 야고보 서간**을 쓰고 필사한 노트를 **부활 성야 미사(4/15)때 봉헌** 했습니다.

아직 필사중인 분들, 걱정마세요~ 끝까지 정성스레 쓰고, 주일날 제단앞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이미 봉헌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한 그 시간을 통해 더욱 큰 은총 받으셨길 바랍니다.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 봉사 - 4/27 목

매달 네번째 목요일 오후 4시에 빈첸시오 홀리스 저녁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빈첸시오 어른들과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오후 4시**, 또는 **배식이 시작되는 오후 6시**에 시간되는 분들, 함께 만나 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4/27 목 오후 4시 (시작)

장소: 722 Washington St. Oakland (* <https://www.cityteam.org/oakland/>)

(*Cityteam은 1957년부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과 숙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해 온 비영리 크리스찬 단체입니다. <https://www.cityteam.org>)

영어미사 - 4/30

하모니, 프락회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두번째 영어미사가 마지막 주일 (4/30)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영어권 신자들이 편안하게 소통하며 미사에 참여하도록 돕는 본 미사에 많은 하모니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침/교중미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오후 4시에 한번 더 참례 하시거나, 둘 중 선택을 한다면 마지막 주일은 오후 4시 미사에 참례하여 영어미사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쉬는 영어권 교우들과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소중한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영어미사때는 영어 이름표 부착)

Rice Bowl 회수 - 4/30 까지

사순시기동안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헌한 Rice Bowl을 4/30까지 성당 입구에서 회수 합니다.

밴드 활성화

하모니 SNS인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아래 링크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ttp://band.us/n/aea2T3f9B3UcO>

<리마인더>

- **10 PM 기도**: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와 성모송, 영광송으로 마무리 기도)을 드립니다.

-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2017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홍상미 세레나

안해준 야고보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